

“매일 오늘 같이 즐거울 수 있다면...”

■ 상락원 80여 식구들의 놀이동산 나들이

“나 예쁘지” ... 나들이 준비 끝

밤잠을 설쳤다. 옷도 때 때고 광나게 입었다. ‘짧은 아빠·엄마·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가서 신나게 노는 날이다. 상락원 앞뜰이 새벽부터 들떠있다.

1월 28일 장애아동 요양시설 상락원. 대형버스 2대가 벌써부터 길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 상락원의 5살 기남이부터 10살 승태, 자원봉사자, 지용 스님 등 대식구 80여 명이 떠나는 ‘겨울 나들이’. 잔뜩 신들이 나왔다. 24시간 간헐 지내던 아이들이 기지개를 마음껏 켜다. 어제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도 전에 버려진 아이지만, 오늘날만큼은 아니다.

‘상락원 일장’ 소장(8·정신지체1급) 이가 한껏 뽐을 냈다. 웨이브 파마도 했고 나비 모양의 핀도 달았다. 자원봉사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V’자를 내어 보인다. 그리고는 어눌한 말로 “음, 나 예쁘지”하고 피식 웃어댄다.

나들이 준비에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대식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다보니 쟁쟁하 할 것도 많다. 기저귀는 기본, 구급약, 간식과 점심 도시락, 젓병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고스란히 준비물에 담겨진다.

풍경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오전 10시 반, 드디어 세상 밖으로... 아이들이 모두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눈을 부릅뜨는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을 하나라도 놓지 않는 모습이 진지하다. 조는 아이도 눈에 띈다. 정신지체2급 용훈이(9). 이영록(20) 씨가 흔들려 깨운다. 그래도 눈이 감긴다. 졸린 눈을 비벼 떠도 연신 하품이다. 어젯밤 들뜬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

“용훈이는 제가 중3때부터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용훈이가 재작년에 심장수술을 받기 전날, 대뜸 ‘아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녀석이 마음을 열더군요.”

3년 전, 용훈이는 이 씨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 가족’이 됐다. 할머니와 엄마도 생겼다. 상락원에서 5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벌여온 이 씨의 어머니 김은옥(49·법명 대명화) 보살과 지현(22·대전대 02학번) 씨가 바로 그들이다.

‘엄마 스님’도 함께 했다.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장 법등 스님과 지민이(6·정신지체1급). 이들은 지민이가 생후 두 달이었을 때, 모녀지간의 인연을 맺었다. 지민을 본 첫 순간, 스님은 잔뜩만다.

“느낌이 남달랐어요. 녀석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민이가 첫 돌이었을 때 큰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어미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홀로서기’ 배우는 기회

확자지킬,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상락원 아이들과 하루 동안 부모로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잠실별 롯데월드에도 도착하기까지 실재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이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고개 짓이 바쁘다. 제일 먼저 승태(10·정신지체2급)가 상락원 원장 지용 스님의 손을 이끈다.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족족 만지고 말을 건넨다. 인기몰이를 한 것은 공중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번호버튼을 눌러댄다. 그리고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누구에게 걸려고 한 전화였을까.

“아이들이 혼자 있기를 제일 싫어해요. 매일 집에서만 지내다보니 바깥나들이를 한다고 말하면,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나요. 떼쓰고 울고, 밥까지 안 먹어요. 빨리 가자고.”

이런 겨울 나들이 행사가 마련된 이유, 지용 스님은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또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사회적응훈련의 기회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지하철 표도 끊어보고, 차레를 기다리며 줄도 서보아 아이들이 앞으로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용 스님의 생각이다.

나들이 행사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기구 타는 시간.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6개조로 나뉘, 놀이 시설로 흩어진다. 회전목마, 열기구, 점시 타기 등.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 끈다. 고려대 자원봉사모임 ‘잠살이’ 회장 박영목(20·03학번) 군이 기남(5·정신지체1급) 이를 업고 놀이 기구로 뛰어간다.



“아이들을 한번 보면 정이 안 들레 안 될 수가 없어요. 같이 놀다 막상 헤어지면 눈에 밝히기까지 한다니까요. 절대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친만만한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기쁨을 얻게 돼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풍물패 공연. 막대 사랑을 받고 있던 민경(9·정신지체1급) 이가 풍물패 중앙 무대를 점령하고, 소장 이가 노래 부른다. ‘얼씨구- 짚씨구-’. 한 바탕 치러지는 공연에 자빠지고 엎어져도 좋다고 난리들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후 4시.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차에 다시 올랐다. 발걸음 상기던 아이들이 기쁨을 가누지 못하는듯 연신 소감들이 쏟아진다. 바라보는 ‘짧은 아빠·엄마’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진다. 돌아오는 길, 용훈 이가 김이 잔뜩 서린 창문에 무언가를 썼다 지운다.

무엇을 썼을까. 옆에 앉은 이영록 씨에게 말을 건넨다. “아빠!”

글= 김철우·사진= 박재원 기자



상락원은?
장애아동 86명의 보금자리 상락원.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법인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지난 98년 기원학사를 리모델링해 문을 연 장애아동요양시설이다. 대부분 연고가 없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지체, 뇌병변 등의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 현재 후원자 및 일반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따뜻한 인연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기저귀, 생활 필수품 등이 늘 부족하다.

후원계좌 외환은행 287-22-00424-0 (예금주 상락원) (02)921-6410



① ‘웃어요 사진 찍습니다.’ 상락원 대식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② 롯데월드에서 상락원 유모차 부대가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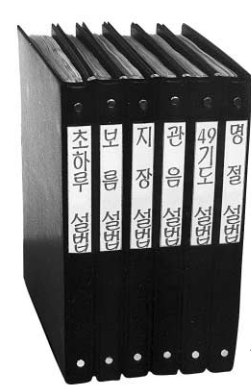


③ 원장 지용 스님의 손을 잡으니 가파른 계단도 문제 없어요.
④ 지민이가 엄마처럼 따르는 법등 스님.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현대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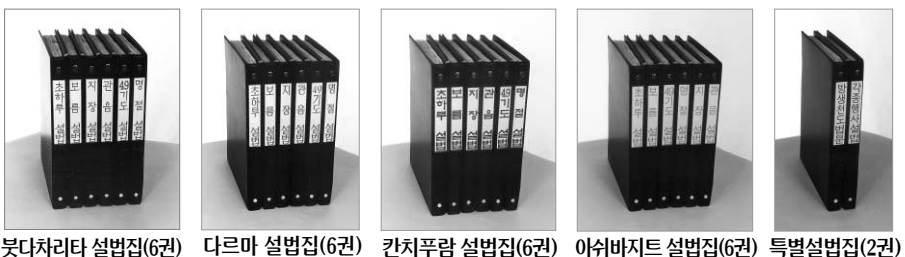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새로 나온 <프리즈나 6권> 특별가 책정!!!

프리즈나(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 6권(특별)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 천도, 명절
-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있는 사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현공과 천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리즈나>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현대설법연구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